

‘슈퍼땅콩’ 김미현도

알고보니 ‘기부천사’

소년소녀가장돕기 1억 쾌척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슈퍼땅콩’ 김미현(31·KTF·사진)이 21일 고향인 인천 지역 소년·소녀 가장 돕기 성금 1억 원을 쾌척했다.

김미현은 부친 김정길 씨를 통해 이날 인천시에 성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냈다”고 밝혔다.

이 돈은 지난 4월 알리안츠생명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받은 계약금에서 폐낸 것이다. 김미현은 2006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독일연방청소년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이수미(22)씨에게 5천만 원, 인천시 독거노인 돋기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어린이 돋기 ‘신화’ 끊친다



신혜성, 이민우, 김동완, 전진, 에릭 등 그룹 신화의 멤버들이 8살 여자 어린이 이가인 양의 예쁜 얼굴을 찾아주기 위해 뭉친다.

3월 10주년 기념 공연 후 각자 솔로 가수 및 연기자로 활동중인 이들은 6월 21일 오후 6시, 22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신화의 아름다운 얼굴 찾아주기 소울레이트 콘서트’란 타이틀로 3개월여 만에 한 무대에 선다.

윤하, 日 교통성 한국친선대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인 가수 윤하(본명 고윤하·20)가 2년째 두 나라를 찾는 가교 역할을 한다.

소속사인 스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윤하는 지난 19일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VJC(비지트 재팬 캠페인) 한국친선대사로 제임령됐다. 윤하는 지난해부터 임기 1년의 한국친선대사로 활동해 왔다.

21C여성발전위 국민 모범인賞 받은 ‘국민 MC’ 송 해 씨

“한평생 국민에 웃음 선사… 보람 느껴”

“돈이나 인기보다 사람이 재산이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편하게 대화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내가 가장 큰 부자야.”

‘영원한 오빠’, ‘국민 MC’ 송 해(81)씨가 21일 오전 광주를 방문했다. (사)21세기여성발전위원회(회장 이화성)가 주는 ‘국민 모범인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다.

호남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국민 모범인상 시상식은 어느 행사와는 달랐다. 딱딱하지 않고 즐겁고 편안했다. 이날 주인공 송 해에게 마이크를 넘어가자 행사장을 금세 ‘전국노래자랑 녹화장’으로 변해버렸다. 참석자들과 가볍게 껴안고 ‘나팔꽃 인생’을 부르고, 앵콜을 외치고….

그는 25년째 ‘전국노래자랑’ 마이크를 잡고 있다. ‘전국노래자랑’의 주인은 방송국도, MC도, 스텁도 아니고 국민이다. 여기에는 어떤 자격기준도 없다. 예술에서 뛰든 보여주고 통과되면 주인공이니까.” 그는 ‘누구나



주인인 무대’가 전국노래자랑의 가장 큰 매력이란다.

그는 출연자들과 호흡하기 위해 녹화 하루전 지방에 내려가 ‘민심’을 살핀다고 한다. 시장을 돌아보고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목욕탕과 해장국집을 찾아 덕담을 나눈다. 서민들의 영원한 오빠로 통하는 송 해씨의

구수한 진행솜씨의 원천이다.

송 씨는 1954년 연예계에 데뷔한 이래 54년 동안 국민들에게 건전한 웃음을 주고 방송 발전에 이바지했다. 유랑극단 가수로 출발해 전국노래자랑의 마이크를 잡은 지 올해로 25년째, 병원에 입원한 6개월을 빼고는 한 번도 편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또 사재를 털어 원로연예인 사랑방을 만들어 동료들의 노후도 살뜰히 챙기고 있다. 그의 이런 활동들이 국민 모범인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이다.

팔순임에도 젊은이 못잖은 정열을 선보이고 있는 송 해씨는 “움직이지 않으면 바보다. 대화자가 없으면 고독하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며 “전국노래자랑을 보고, 즐거우면, 하는 일 잘 되고,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아름다워요”

獨 언론인 방문 감탄사 연발

슈테른(Stern)지 등 독일 6개 매체 언론인 8명이 지난 20일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장을 방문해 다양한 볼 거리에 감탄사를 연발했다.(사진)

이들은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 흥보 및 북경 올림픽 여행객들의 전남 유치를 위한 팸투어 차 이날 엑스포장을 찾았다.

독일 언론인들은 친환경 농업전시관

과 지역단체 어메니티관, 국제 나비곤충 표본관 등을 둘러보고 국제 나비생태관에서 직접 나비를 날려보기도 했다.

독일 하이밸브레크 출신 게랄디네 프리드리히(여·37) 씨는 “행사장이 매우 단조롭고 답답했던 일본 박람회와는 달리 이곳은 너무 여유롭고 아름답고 화려한 느낌”이라며 “나비만 볼 줄 알았는데 곤충은 물론 채소·과일·꽃 등 많은 불거리를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공부 할수록 ‘인생의 눈’ 밝아져요”

고입 검정고시 광주 최고령 합격 73세 백채숙 할머니

“수십년 묵은 한을 푸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최근 합격자를 발표한 고입 검정고시에서 광주시의 최고령 합격자로 기록된 백채숙(73) 할머니는 배우는 즐거움에 하루하루가 새롭다.

백 할머니는 남편이 숨진 2005년 말부터 2년 6개월 가량 시험을 준비해 값진 합격증을 받았다.

학업에 대한 갈증을 품고 있으면서도 6·25 참전 경찰인 남편과 5남1녀를 뒷바라지 해야 하는 할머니에게 공부는 ‘사치’였다.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 후 결혼시키고 남편이 숨진 뒤에야 백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지만 나이는 70세를 넘어 있었다.

그러나 백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학교에서 한자 공부도 열심히 했다. 노력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손자, 손녀에게 ‘SOS’를 보냈다.

“이것도 모르느냐”는 궐관을 하기도 했지만 손자, 손녀들은 자신들의 테이프를 빌려주며 할머니를 응원하는 좋은 선생님이었다. 백 할머니는 다음 학기에 고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해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

백 할머니는 “적지 않은 나이에 힘들기도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좋고,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인생에 눈을 뜨는 느낌이 든다”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산업안전공단 ‘협력업체 상생 파트너십 협약’

한전 전남본부 어린이 초청 나비축제 관람



도공 호남본부 꽃잔디 75만 포기 식재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심찬섭)는 21일 호남고속도로 광산 나들목 주변에서 직원과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꽃잔디 75만 포기를 심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관희)는 21일 금호건설(주) 광주 주호복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소장 박광하) 회의실에서 ‘모기업·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십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한전 전남사업본부 사회봉사단(단장 김귀중)은 21일 광주영아일 시보호소 어린이 33명을 초청, 함평 나비축제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한전 전남사업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1 202-222-628 FAX (062) 222-4938, 222-4918

씨 장녀 지영양=25일(일) 낮 12시 구례 지리산가족호텔 1층 천왕봉호수.

▲김만씨 차남 영철군 고준석씨 회장이 강희양=25일(일) 낮 12시 광천동 경복궁에당컨벤션 2층 미소홀.

▲원종홍씨 차남 성연군 이판순 씨 장녀 은미양=25일(일) 낮 12시 30분 서울 오델리.

▲방호규(광주시청 공로연수증) 장남 유희석(치과의사)군 정승우(부여군부인과 원장) 장녀 다운양=24일(토) 낮 12시 운암동 그랑시아 웨딩홀 2층 사파이어홀.

▲조성수(농협 목포농산물유통센터 대표)씨 장남 융환군 이유성씨 장녀 균영양=24일(토) 낮 12시 10분 에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컬렉션홀.

▲조대성씨 아들 승훈군 장영자(김진원 전 광주일보 문화부장 미방인)씨 딸 혁선양=24일(토) 낮 12시 40분 광주 유토피아웨딩홀 3층 크리스탈홀.

▲정준진(양동초교 교장)씨 장남 해원(의사)군 이진훈(도아산업개발 회장)씨 차녀 아림(성신여대 교수) 양=24일(토) 낮 1시 천주교 방립동 성당.

▲조원석(광주시 환경시설공단 수질관리사업소장)씨 막내 우재((주)한양 대리)군 오장열씨 막내 회장(치평중 교사)양=24일(토) 낮 1시 광주 캠퍼리아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영암 시종초 29회 동창회(회장 박만우)=24일(토) 오전 11시 국제호텔 건너편 바다이야기 662-675-5250.

▲광주 인성고 총동문회(회장 김상목) 가족 한미당=25일(일) 오전 9시 도교 운동장. 018-610-8924.

▲광주농 총동창회(회장 김홍주) 정기총회 및 한마음 축제=25일(일) 오전 10시 도교 강당 및 운동장. 062-514-4400.

▲전남대 총동창회 구례지부(회장 정기영) 정기모임=22일(목) 오후 6시30분 명지회관. 011-634-4841.

▲전남대 총동창회 구례지부(회장 정기영) 정기모임=22일(목) 오후 6시30분 명지회관. 011-634-4841.

▲전주주 총동창회(회장 최영관) 제17차 정기총회=24일(토) 오후 4시 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세미

나실. 062-227-8880.

▲재광 영암군 항우회(회장 김재철) 제59회 정기총회=24일(토) 오후 5시 광천동 경복궁 웨딩컨벤션. 011-628-1996.

▲수원백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백형로) 월례회=23일(금) 오후 7시 유동 아립회관. 062-523-5885.

▲청원황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황양선) 제15차 운정원회원 및 연찬회=24일(토) 오전 11시 화정동 탑평하우스 연회장. 062-367-8880.

▲영암 시종초 29회 동창회(회장 이정주) 제18차 총회=23일(금) 오후 6시30분 농성동 상록회관 4층. 011-608-1383.

▲재광 영광군 항우회 정기총회=24일(토) 오전 10시 광주 증심사 입구 주차장. 010-2288-5119.

▲재광 화순군 항우회(회장 조기선) 제32회 정기총회=24일(토) 오전 10시30분 히크호텔. 062-227-8500.

▲재광 나주 항우회(회장 최영관) 제17차 정기총회=24일(토) 오후 4시 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세미

나무). 박종효(신한은행 광산지점 기업금융과장)·류덕선(현대건설)·김상겸(제주항공)씨 빙부상=발인 22일(목) 유동 광주삼성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519-4441.

▲정화성씨 별세 종태(한국전력 전북지사)·종식(세무사)씨 부친상=발인 22일(목) 우산동 대전장례식장 1호실. 063-250-1444.

▲이남식씨 별세 상문(한국 인스팜)씨 부친상 최현종(대우건설)씨 빙부상=발인 22일(목) 우산동 무동 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이상운씨 별세 주현(전남매일 지방부장)·주영·주환·주호·경숙씨 부친상=발인 23일(금)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12호 011-624-9898.

향우회

▲임정순씨(임철남·철민·순미·수진·수희씨 부친, 배해량·서인준·최희동씨 빙부) 칠순잔치=24일(토) 오후 6시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5층 대연회장.

▲광주 남구문화원 강진 문화유적 답사=24일(토) 오후 9시 봉선동 남구문화예술회관 앞 출발. 062-671-7356.

부음